조선반도 냉전사연구의 신전개를 둘러싸고: 특히 1970년대를 중심으로

취지

1970년대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한편으로는 초기의 미중화해나 중일국교정상화 등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치에 큰 움직임이 일어났고, 어떤 의미에서는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향했다. 조선반에서도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합의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가 조선반도에서도 배당받기를 '기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조선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그러한 긴장완화가 제도화되지 않고, 오히려 남북체제 경쟁은 격화됐으며, 보기에 따라서는 긴장이 더욱 심해졌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2016년에 간행된 沈志華『最後の天朝』에서는, 1975년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계획을 중국의 모택동에게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해석'도 제시되었다. 1975년에는 베트남의 군사적 통일 등의 영향도 있었고, 긴장은 심화되었다는 측면도 있다.

이렇듯, 1970년대의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는 상당히 복잡하고 흥미로운 전개를 보여주었고, 그것에 대한 냉전사 연구가 상당히 전개되어 왔다. 본 연구회에서는 70년대의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에 관해서, 이러한 기존의 냉전사 연구가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해명했는가를 검증하고, 금후 전개해야 할 과제와 관련해서, 사료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시: 2017년 7월 30일 (일요일) 13시 ～18시 00분
장소: 도쿄대학교 고마바 I캠퍼스 18호관 4층 콜라보레이션 룸 1
언어: 일본어 (통역 없음)
※참가 신청 필요함. 무료.

종합사회: 나가사와 유코 (長澤裕子,도쿄대학)

개회사: 13시 ～13시 10분
기미야 다다시 (木宮正史, 도쿄대학교 글로벌지역연구기구한국학연구센터장)
기조보고: 13시 10분 ～40분
와다 하루키 (和田春樹,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沈志華『最後の天朝』을 둘러싸고

제 1세션: 13시 40분 ～15시 45분
1970년대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한국과 미일, 북한과 중소
사회: 기미야 다다시
【보고】
1. 최경원(崔慶原, 규슈대학교)「냉정과 한일관계」
2. 김백주 (金伯柱, 도쿄대학교)「1970년대 한반도의 냉전구조」

【토론】
히로이와 슌지 (平岩俊司, 난잔대학교)
이종원 (李鍾元, 와세다대학교)

제 2세션: 16시 00분 ～18시 00분

1970 년 대　남 북 조 선 의　외 교 를　어 떻 게　해 석 할　것 인 가 .
사 회 : 도 노 무 라　마 사 루 (外村大, 도 쿄 대 학 교)
【보 고 】
１. 유 선 희 (劉仙姬, 오 사 카 죠 가 쿠 인 대 학 교)「1970 년 대　한 국 외 교 의　재 해 석 」
2. 미 치 시 타　나 루 시 케 (道下徳成, 정 책 연 구 원 대 학 교)「1970 년 대　북 한　외 교 의　재 해 석 」
【토 론 】
기 미 야　다 다 시 (木宮正史, 도 쿄 대 학 교)
박 정 진 (朴正鎭, 쓰 다 쥬 쿠 대 학 교)
니 시 노　쥰 야 (西野純也, 게 이 오 기 쥬 쿠 대 학 교)

폐 회 사

간 친 회 : 18 시　00 분 ～19 시　30 분　18 호 관　오 픈 스 페 이 스